

JOURNAL OF HUMANITIES

人文論叢

79권 3호 2022년 8월

vol. 79, no. 3, August 2022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인문논총 79권 3호(2022. 8. 31)

/

차례

기획논문	조선시대 소송의 운영 실태	
	조선시대 사송(詞訟)의 공정성과 송관(訟官)의 역할	한상권 7
	조선시대 송관의 공문서와 송자의 역할	김경숙 45
	조선 전기 소송 청탁과 처벌	한효정 79
	개인 일기와 결송입안(決訟立案)을 중심으로	
	엇갈린 시선과 새로운 해석	전경목 121
	조선후기는 호송사회였나?	
일반논문	한국어사 자료에 나타나는 주격조사	백채원 155
	‘이라셔’에 대한 소고(小考)	
	개화기 여성 선교사들의	지유리 195
	사회적이고도 문학적인 모임 연구	
	서울 유니온 클럽의 셰익스피어 독서 모임으로부터	
	1930년대 한시선집의 여성시 수록 양상과 의미	정소연 227
	1930년대 위생조합 제도의 확장과 성격	김진규 261
	‘도시화’와 ‘경민일치’적 관점에서	
	영어권 문학을 통한 한국 지역 문화와 현대사 이해	최희영 297
	북미 독자층의 『해녀들의 섬』 수용 분석	
	인물 분석을 통해 본 영화 〈Minari〉(2020)의	김미영 327
	구조와 의미	

	메리 아스텔의 초기 여성주의 “잉글랜드국교회의 딸”과 지식의 정치	이우창 357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나타난 이성과 감정의 조화 독일 계몽주의의 ‘감상주의’(Empfindsamkeit) 개념을 중심으로	이혜진 387
서평	1920년대 만주, 상하이, 베이징과 조선의 ‘근대’들 주효퇴(2020), 『식민지 조선 지식인, 혼돈의 중국으로 가다』, 소명출판, 424쪽	송가배 425
	제국은 식민지의 공간에 실증주의의 깃발을 꽂는다 박준형(2022),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공간 재편과 만철조사부: 권력·공간·학문의 삼중주』, 사회평론아카데미, 300쪽	심희찬 437
	누가 오키나와를 버림돌[捨石]이자 췌기돌[要石, Keystone]로 만들었는가 나리타 지히로(2022), 임경화 옮김, 『오키나와 반환과 동아시아 냉전체제: 류큐/오키나와의 귀속과 기지 문제의 변용』, 소명출판, 434쪽	김도민 451

Journal of Humanities
Vol. 79 No. 3, August 2022

/
Contents

Special Topic: Operational Realities of Litigation in Joseon Dynasty

Fairness in Civil Litigation and the Role of Judges in the Joseon Dynasty
Han, Sang-Kwon | 7

Litigator's Personal Delivery of the Official Documents Concerned with Lawsuit
in the Late Joseon Dynasty
Kim, Kyeongsook | 45

Litigation Lobbying and Punishment in the Early Joseon Dynasty Based on
Cases
Han, Hyojung | 79

Viewpoints at Odds and New Interpretations
Was the Late Joseon Dynasty a Pro-Lawsuit Society?
Chon, Kyoung Mok | 121

Articles

A Study on the Nominative Case Marker 'Irasyeo' in Korean Historical Literature
Baek, Chaewon | 155

Social and Literary
Female Missionaries in Joseon: From Their Shakespeare Readings in the Seoul Union
Ji, Yuri | 195

Women's Poetry in the *Hansi* Anthologies of the 1930's and Its Meaning
Chung, So-yeon | 227

The Expansion and Characteristics of Sanitary Association System in 1930'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ization' and 'Uniformity of the Police and Civilian'

Kim, Jin-gyu | 261

English Literature as a Tool for Understanding Korean Local Culture and
Contemporary History

An Analysis of North American Readers' Review of *The Island of Sea Women*

Choi, Heeyoung | 297

An Essay on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the Movie *Minari* (2020) through
Character Analysis

Kim, Mee Young | 327

Mary Astell's Early Feminism

"A Daughter of the Church of England" and the Politics of Knowledge

Lee, Woochang | 357

The Harmony between the Reason and the Feeling in Mozart's *Le nozze di Figaro*
In Terms of Empfindsamkeit

Lee, Hye-Jin | 387

Book Reviews

Manchuria, Shanghai, Beijing and Joseon Modernities in the 1920's

Review of *Colonial Korean Intellectuals in the Chaotic China* by Zhou, Xiaolei

Song, Gabae | 425

The Empire Puts the Flag of Positivism in Colonial Space

Review of *Reorganization of East Asian Space by Imperial Japan and Mantetsu Research
Department* by Park, Junhyung

Shim, Heechan | 437

Who Turned Okinawa into Abandoned Stone and Keystone?

Review of *The Reversion of Okinawa and the Cold War Regime in East Asia: The
Transformation of Jurisdiction and the Problem of American Bases in Rūkyū/Okinawa* by
Narita, Chihiro

Kim, Domin | 451

人文論叢

79권 3호

2022년 8월

기획 논문

기획의 말

/

조선시대 소송의 운영 실태

소송은 인간 사회의 갈등 관계가 국가 권력을 통해 해소되는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일상이 국가의 공적인 영역과 만나는 접점에서 그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생생하게 드러나며, 개인의 권리의 식에 대응하는 국가 권력의 여러 방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소송은 사송(詞訟)과 옥송(獄訟)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해당합니다. 특히 말과 문서로 다투는 사송은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국가와 개인의 공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회와 문화를 다층적이고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통로입니다.¹ 한국사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법과 제도사적인 측면에서의 일부 연구 외에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래 고문서 및 생활일기 자료들의 조사 정리 사업이 상당부분 축적되면서 연구는 전환점을 맞아 국가의 소송 운영과 개인의 법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팀은 조선시대 현전하는 결송입안(決訟立案)들을 전수조사하고 역주 사업을 추진한 공동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학계에서 이 흐름을 주도해 왔고, 본 기획 연구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소송 운영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인들의 지향을

1 이하에서 사용하는 ‘소송’은 조선시대의 ‘사송’(詞訟)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함을 밝혀둔다.

보여 주는 소송 관련 법규와 그 법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송의 현장성을 보여 주는 사례 확보는 소송 연구를 구체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오늘날 소송 판결문에 해당하는 결송입안, 청원서와 소장에 해당하는 소지(所志) 등 고문서의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 경험이 기록된 일기와 법전, 목민서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소송 운영 실태를 송관과 송자의 시각에서 균형감 있게 접근하였으며, 조선전기 소송 과정의 청탁 행위와 조선후기 소송절차의 간소화를 중심으로 소송에 대한 인식과 법문화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민사소송이 실제로 운영되는 모습 즉 법과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당대인들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였으며 당시 사회는 어떠한 법문화를 형성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 사회의 소송은 이른바 ‘원님재판’으로 상징되듯이 자의적이고 무원칙하게 이루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전하는 결송입안에서 보여 주는 송관의 소송 운영은 심리의 공평성, 증거 조사의 객관성, 법문 해석의 정확성 등을 특징으로 하며 소송 현장에서 소송의 ‘공정성’이 관철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는 법리 논쟁이 실종되는 모습을 보이는 한계도 있지만, 사법 현장에서 송관의 심리는 쌍방심리, 직접심리, 당사자주의 등 근대국가의 소송심리 원칙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주며, ‘종문권시행(從文券施行)’이라는 법언에 따라 철저하게 문서와 증거 중심의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송관들은 실무에 서툰데다 선입견과 달리 그들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으며, 백성들도 법률 지식에 주체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들 공정성 실현을 위한 송관들의 소송 운영은, 조선시대 소송이 자의적이고 무원칙하게 운영되었다는 기존의 편견을 수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조선시대 소송은 당사자주의 원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이 개시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직접 소환하여 송정에서 함께 시송다짐(始訟俵音)해야 했고, 변론과 증거도 소송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었고, 판결을 위해서도 원고와 피고의 결송다짐(決訟俵音)이 있어야 했습니다. 당사자주의는 소송당사자들이 송관의 공문서를 직접 전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다른 고을에 있는 소송상대자 및 증인을 소환하거나 진술을 확보하고 호적, 군안 등 다른 고을 관청에 소재한 증거문서를 검토하고 전서(傳書)해 오기 위해서는 송관이 해당 고을 수령에게 공문서를 보내 업무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송관의 공문서는 공적인 전송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민간인인 송자가 직접 지니고 가서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특히 송관이 선제적으로 공문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송자가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문성급(移文成給)을 요청하면 송관이 수용하여 공문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당사자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소송 운영하에서 송자들은 타 고을까지 왕래해야 하는 현실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동적인 법적 행위성을 보여 줍니다.

소송 과정에서 송자와 송관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행해지는 청탁 행위는 소송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16세기 이문건의 『목재일기』에는 친인척 및 사족에서 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청탁 행위들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문건은 청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청탁인의 도덕적 평판이나 소송 전력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소송청탁에 관한 처벌 규정은 『경국대전』의 분경금제조(奔競禁制條) 및 지비오결(知非誤決)과 판결 지연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에 따른 상호부조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송관의 판결권 보장 및 소송 회피 등으로 처벌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탁 처벌은 시기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항상 논의의 대상이었고, 청탁을 받은 이들의 태도, 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에서 조선전기 소송청탁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선후기 사회는 ‘다송’(多訟) 또는 ‘다송사회’로 명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선은 유교이념에 따라 ‘무송’(無訟)을 이상으로 하고 사송간(詞訟簡)의 정책을 추진하여 소송이 억제된 사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 사례를 통계 분석한 결과는 조선후기 소송이 크게 성행하고 백성들은 소송을 꺼리거나 기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이에 조선은 소송이 억제된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호송(好訟) 사회라는 시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들 조선후기 사회를 보는 시선은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모두 소송의 현상에만 주목하였고 소송에 대한 유교적 편견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후기 소송이 성행한 현상을 가치중립적인 ‘다송사회’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며, 다송의 현상은 조선후기 사람들의 소유와 권리 및 관습에 대한 의식이 크게 확대 성장한 데 따른 결과로 파악됩니다. 조선후기 소송이 크게 증가하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당자에게 일부 위임할 것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학자 수령들은 소송을 교화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널리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숙